<사도> 바울

* 10/20(화) **고후 ❶** 1-7장

편지 머리말
► 1:1-11 인사말, 위로/건지심/살리심

본론 ❶ 틀어진 관계 회복하기
► 1:12-2:13 오해와 갈등들
► 2:14-5장 나는 진정한 <사도>다
► 6-7장 관계 회복 요청

본론 ❷ 예루살렘 교회 돕기
8-9장 예루살렘 교회 돕기 모금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 독려

본론 ❸ 누가 참인가?
10-13:10 사도권 변호,
경고들, 세 번째 방문 약속

편지 마무리
13:11-13 결어

Before 줄치며 읽기

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 #역할 #태도

After 묵상하기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위로>를 얻었습니까?
상처가 은사가 됩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바울은 심한 고뇌와 비탄에 잠겼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바울이 마음을 많이 쏟은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실력을 폄하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논할 정도로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신변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행19:23-24).

참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받는 환난과* 고난입니다(4-5절).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심리적, 육체적 중압감이 얼마나 심했던지(kath hyperbolen)*
힘겹고 짓눌려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었습니다(8절).
사형 선고를 받은 심경이었습니다(9절).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1:3).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5절).
철저하게 무력해 졌을 때 바울은 건지시는 하나님(10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게 되었습니다(9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5:17)
살아계신 주님,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5:15)
그분을 의지하여 다시금 살아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동일한 환난을 겪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4, 6-7).

주님으로 인해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라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1:10)"

참고도서
BST 고린도후서(IVP)
How 고린도후서(두란노)
현대성서주석 고린도후서
WBC 고린도후서(솔로몬)

* 환난 '압력'의 의미를 내포 하는 헬라어가 쓰임

* 심하다 (kath hyperbolen) 배가 짐의 무게에 못 이겨 가라앉은 모습이거나 눌려서 부서지는 모습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❶ 교인들 중 일부는 역동적인 선교 현장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선교에 관한 일정과 계획을 나눴습니다.
현안들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1:16).
이 때 차후 방문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의치 않아 편지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1:23,2:4).
교인들은 바울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확신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경솔히 결정하며, 두말을 한다고 여겼습니다(1:17-18).

❷ 바울은 고린도 교회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게바>에게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헬라인 교인들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으로 지성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아볼로를 선호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바울이 육체노동자인 것도, 그의 수사학과 웅변술도 마뜩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후원 한다고 하는데도 굳이 거절하는 것도 싫었습니다(11:7-9)
유력한 성도들의 잘못을 훈계하라는 요청도 불편했습니다.

❸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 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라 말했지만, 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었습니다(11:13,23).
이들은 유대교에 깊이 뿌리박은 유대인들로 율법, 바리새주의, 모세 언약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면서도 헬라어, 수사학, 웅변에 능했습니다.
자신들의 초자연적, 신비적 경험들을 부각시키며 합법적인 일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식과 자랑,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집착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비난과 모함, 공격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하다(1:17), 내적인 힘이 없다(4:16),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4:2), 속이는 사람이다(6:8),
부패하며 착취한다(7:2), 대면할 때는 말이 약하고, 편지에만 강하다(10:1,10—11:6,21).
어리석고 정신없는 말을 한다(11:1,16,23), 영적인 경험이 부족하다(12:1,11-12) 등.

바울은 <증명>을 넘어 <회복>을 위해 답하고 반응합니다(7:3).
바울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알아차렸습니다(2:11).
바울이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선교 계획을 조정한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개인의 상황이나 조건, 셈법에 의해 <예>와 <아니오>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1:17-20).
그는 일정을 조정하는 일도, 문제에 답하는 것도, 억울하고 고난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1:18-23).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이들에게(11:18)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자랑했습니다(10:7).
강함을 부각시키는 자들에게 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12:19).
외적 스펙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 주신 권세를 자랑했습니다(10:8).

바울의 삶과 사역은 이미 그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1:1)"
바울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통독의 맥 잡기

*** 1-7장 고린도교회와 틀어진 관계 회복하기**

1:1-11 편지 머리말
1:1-2 인사말
1:3-11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환난>과 고난을 위로하고 살리셨다!

1:12-2:13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들
1:12-24 자주 바뀐 일정에 대하여
2:1-4 방문 대신 편지를 보낸 이유
2:5-11 징계 받은 이에 대한 용서 부탁
2:12-13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

2:14-5:21 나는 진정한 〈사도〉다.
2:14-17 그리스도의 향기
3:1-3 그리스도의 편지
3:4-18 새 언약의 일꾼, 영광스런 영의 직분 - 모세, 율법의 직분

4:1-7 그러므로 낙심치 않고,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4:8-18 고난에도 절망치 않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 소망으로 일한다.
5:1-10 하늘의 장막, 처소를 소망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산다.
5:11-21 누가 진짜인가? : 육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라.

6-7장 회복 요청 : 마음을 넓히라. 우리를 영접하라
6:1-13 관계 회복의 요청 :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마음을 넓히라!
6:14-7:1 잘못된 자들을 떠나라 : 구별된 삶, 청결한 삶
7:2-4 관계 회복의 요청 :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7:5-16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 바울의 기쁨, 부연